



김래용(협성대)

1. 서론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은 포로기 이후 산물인 제3이사야서(사 56-66장)의 핵심 주제는 이사야 60-62장에 언급되는 구원 신탁이며, 이 외에 이 책에 구원지연의 문제, 이방인 수용의 문제(안식일 준수와 관련), 우상숭배의 문제, 부패한 지도자들의 문제, 금식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고 보았다.¹⁾ 여기에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문제나 금식의

1)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은 "제3이사야는 포로기 이후 깊은 절망에 휩싸이고 공동의 목표와 사상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던 시대에 구원 약속을 새롭게 선포"하였는데, 이것이 이사야 60-62장에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클라우스 베스터만, 『이사야(3)』(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352, 339-353 참조. 원제는 Claus Westermann, *Das Buch Jesaja 40-6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폰 라트(Gerhard von Rad)는 제3이사야서에 '정의와 공의 문제', '구원지연의 문제', '힘오스려운 제의 행위 문제'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폰 라트, 『예언자들의 메시지』(김광남 옮김), (서울:

문제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제3이사야서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먼저 구원지연의 문제는 이사야 59장과 63-64장의 공동체 탄원들에서 독특한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사 59:1),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사 59:11),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든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사 64:12)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이방인 수용의 문제는 특히 제3이사야서의 처음(사 56:1-8)과 마지막(사 66:18-21)과 구원신탁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사 60-62장)에 잘 드러나며,²⁾ 이 외에도 이방인의 심판과 관련되어 여러 곳에 나타난다(사 60:12; 63:1-6; 66:6, 15-16, 24).³⁾ 우상숭배의 문제는 이사야 57장 3-13절과 65장 1-16절과 66장 17절에 언급되는데, 우상숭배자들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사 57:3)로 불리고, 특별히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로 언급되고 있다(사 66:17; 65:4 참조).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이사야 56장 9-12절에 언급되며, 특별히 이 문제는 제3이사야서에서 금식의 문제와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다(사 58:1-12).

그런데 제3이사야서에서 인상적인 것은 구원지연의 문제, 이방인 수용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가 ‘거룩’(שָׁרָא; שָׁרָא; שָׁרָא)과 ‘정의’(צְדָקָה)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구원지연 문제는 이사야 59장에서는 ‘정의’(8, 9, 11, 14, 15절)와 연결되고, 이사야 63-64장에서는 ‘거룩’(사 63:10, 11, 15, 18; 64:10, 11)과 연결되어 설명된다. 이방인의 문제는 그들의 수용과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

비전북, 2011), 423-425 참조. 원제는 Gerhard von Rad, *Die Botschaft der Propheten* (Munich: Siebenstern Taschenbuch Verlag, 1967).

2) 베스터만(윗글, 349)은 이사야 60-62장에서 “이방민족들이 비록 봉사를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하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윗글, 349, 352.

어 언급되는데, 여기에서도 ‘거룩’(사 56:7; 60:9, 14; 66:20-21)과 ‘정의’(사 56:1)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우상숭배의 문제는 야웨에 대한 의지와 신뢰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언급되는데, 여기에서는 ‘거룩’(사 57:13; 65:5, 11; 66:17)과 특별히 ‘정의’ 대신 ‘심판’(מִשְׁפָּט 미쉬파트)의 동사형, 사 66:15-17)과 연결되어 설명된다.

이 논문에서는 ‘거룩’과 ‘정의’(심판)라는 개념이 제3이사야 공동체의 이슈가 되었던 구원지연의 문제, 이방인 수용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세 개의 이슈와 관련되어 ‘거룩’과 ‘정의’(심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사

몇 명의 학자들은 거룩과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이사야서를 연구하였다. 특별히 오스왈트(John Oswalt)는 ‘거룩’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는 구약에 31번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문구가 이사야서에 무려 25번이나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사야서가 거룩이라는 개념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⁴⁾ 그는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병립되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강력한 자질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의 용법을 7가지로 설명하였다.⁵⁾ 특별히 제3이사야서와 관련하여 오스왈트는 “거룩함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부여될 때,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했거나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제3이사

4) 존 오스왈트, “이사야서에 나타난 성결”, 『성결교회와 신학』 제30호 (2013년 겨울), 9-39; 존 오스왈트, 『이사야 1』 (이음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55-59 참조. 원제는 Joh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NIC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유사한 주장을 위하여 장세훈, “이사야서의 중심 신학: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16호 (2001년 여름), 82-89 참조.

5) 존 오스왈트, 『뫼글』(2013), 11-23 참조.

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사 63:15), 안식일(사 58:13), 이스라엘 백성들(사 63:18), 성읍(사 64:10) 등이 거룩한 곳으로 불리며, 이것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⁶⁾ 갬미(John G. Gammie)는 제3이사야와 그의 선조들(제1이사야; 제2이사야)과의 비교를 통해 ‘거룩’의 개념이 제3이사야에 의해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⁷⁾ 즉 그는 제1이사야나 제2이사야에게 부족했던 안식일 준수 문제가 제3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고(사 56:2-3; 58:13; 66:23), 파괴되기 이전의 성전이 “아름다우며 거룩한 집”으로 묘사되었고(사 64:11), 그것이 다시 아름다우며 거룩한 성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보았다(사 60:13). 게다가 그는 제1이사야서에서 시작된 거룩의 신학(the theology of holiness)의 보편주의(사 6:7; 19:23-24)가 제3이사야서에 언급된 이방인의 구원 문제(사 56:6-7)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이사야서에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주의로부터 포용주의까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그레이(Mark Gray)와 르클레르(Thomas L. Leclerc)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정의’에 관심을 가졌다.⁸⁾ 그레이는 제3이사야서에 언급되는 정의가 독특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⁹⁾ 즉 제3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구제를 베푸는 상황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구제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또한 소외된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에 대한 고통의 포용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1절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사상의 길을 제시하며, 이러한 사상은 이사야 58장

6) 윗글(2013), 27-29.

7) John G. Gammie,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97-101.

8) Mark Gray, *Rhetoric and Social Justice in Isaiah*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6); Thomas L. Leclerc, *Yahweh Is Exalted in Justice: Solidarity and Conflict in Isa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또한 제3이사야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이희성, “이사야 56-59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성경과 신학』 제52권 (2009), 109-141 참조.

9) Mark Gray, 윗글, 58-61.

6-10절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사야 58장 6-10절이 제2이사야보다 더 명확하게 구원에 대한 표현을 정의의 실행과 불가분한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르끌레흐는 제3이사야서의 처음부터 정의는 계약과 계약의 의무들, 특히 안식일 준수의 관점(사 56:3-8; 58:13-14; 59:21)에서 고려되어진다고 보았다.¹⁰⁾ 제3이사야서가 사회적 영역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작되는데, 이것이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약 표현에서 독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는 신의 명령이 계약 의무의 이행으로 이해되어지며, 나아가 이것이 야웨와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에게, 이전에 배제되어진 사람에게까지 명령되고 확대되어진다는 점에서 이사야 전승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렌토르프(Rolf Rendtorff)는 이사야 56장 1절에 언급된 ‘정의’(מִשְׁפָּט)와 ‘공의’(צְדָקָה)와 ‘구원’(יְשׁוּעָה)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졌다.¹¹⁾ 그는 제1이사야가 정의와 공의를 언급하지만 이것들과 구원을 연결시키지 않고 제2이사야는 공의를 정의 대신에 구원과 연결하여 강조하는 반면에, 제3이사야는 공의와 구원과 정의를 함께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이사야가 그의 선조들의 언어 용례를 결합하고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그는 제3이사야서에서 정의와 공의가 인간에게 요구되며, 구원과 공의가 하나님의 임박한 활동으로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특별히 이사야 59장에서 정의는 구원과 병립되어 나타나며 인간의 공의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공의를 베풀 것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콘라드(Edgar W. Conrad)는 그의 책 「이사야서 읽

10) Thomas L. Leclerc, *읽기*, 131-159.

11) Rolf Rendtorff, *Canon and Theology: Overtures to an Old Testament Theology*(Margaret Kohl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62-164, 181-189. 원제는 Rolf Rendtorff, *Kanon und Theologie: Vorarbeiten zu eine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Vluy: Neukirchener Verlag, 1991).

기)에서 ‘정의’(צדקה)와 ‘공의’(תקנות)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다.¹²⁾ 제3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림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버림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사회가 되었으며, 결국 이것은 이사야 59장 9-15절에 암시된 백성들의 탄원의 주요 모티브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59장은 이사야 56장에 언급된 것들(정의, 공의, 구원)과 병행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처럼 학자들은 제3이사야와 그의 선조들과의 비교를 통해 거룩과 정의라는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제3이사야서에 그 두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별히 제3이사야에 강조되는 정의와 공의와 구원의 관계에 집중하였다. 특별히 이들은 제3이사야 시대의 중요한 세 개의 이슈들과 거룩과 정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개념이 포로기 이후 귀환공동체의 세 개의 중요한 이슈들(구원지연의 문제; 이방인 수용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이 이슈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3. 이사야 56-66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1) 구원의 지연과 거룩과 정의

제3이사야서에 תְּקוּנָה (예슈아/구원)는 5번(사 56:1; 59:11, 17; 60:18; 62:1), יְשׁוּעָה (예샤/구원)는 2번(사 61:10; 62:11), יָשׁוּעַ (야샤/구원하다)는 6번 나타난다(사 59:1, 16; 63:1, 5, 9; 64:5 [MT 64:4]). 이것들은 구원의 지연과 야웨의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거룩과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이것들의 관

12) 에드가 콘라드, 「이사야서 읽기」(장세훈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155-158. 원제는 Edgar W. Conrad, *Reading Isaiah*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91).

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구원의 지연과 거룩(사 63-64장; 62장)

제3이사야서에서 구원의 지연과 거룩의 관계는 백성들의 탄원(사 63:7-64:12)에 잘 드러난다. 백성들의 탄원은 제3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구원지연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¹³⁾ 특별히 구원지연의 문제와 관련되어 קָדַשׁ(코데쉬/거룩)가 6번이나 언급된다(사 63:10, 11, 15, 18; 64:10, 11 [MT 64:9, 10]). 이것은 구원지연의 문제와 거룩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계는 이사야 63장 7-14절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 단락은 3개의 주제(구원, 반역, 심판)로 구성되어 있다.¹⁴⁾ 먼저 7-9절은 ‘구원하다’(2번)와 ‘구속하다’(1번)는 동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의 시도를 강조한다. 즉 야웨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8절),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케 하고(9a β 절), 야웨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였다는 것이다(9a β 절). 그런데 10b-14절은 야웨께서 백성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치셨다고 말한다. 옛적 모세의 때에 베풀었던 은혜는 사라지고 이제 야웨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a절은 그 이유를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라’(וַעֲצָבוּ אֶת־רוּחַ קְדָשׁוֹ)고 말한다. 백성들이 ‘거룩한 영’(רוּחַ קְדָשׁוֹ)을 반역하고 근심케 했기 때문에 야웨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7-9

13) 베스터만(윌글, 344-345)은 이사야 60-62장의 구원신약이 백성들의 ‘탄원에 대한 대답’이며, 그리고 이사야 59장과 63-64장에 언급된 탄원은 ‘민족의 실제 탄원’이라고 보았다.

14) 와이브레이(Roger N. Whybray)는 이사야 63장 7-14절에 언급된 3개의 주제는 신명기 역사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Roger N. Whybray, *Isaiah 40-66* (NC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256; Brooks Schramm, *The Opponents of Third Isaiah: Reconstructing the Cultic History of the Restoration* (JSOTSup 19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150-151 참조.

절에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은 ‘야웨’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야웨’ 대신에 ‘거룩한 영’이 언급된다. ‘야웨’가 ‘거룩한 영’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거룩한 영’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이 단락의 후반부에 언급된(사 63:15-64:12) 백성들의 탄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의 탄원에는 4번의 ‘거룩’이 언급된다(사 63:15, 18; 64:10, 11).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처소에 계신 주님께서(사 63:15) 보호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며(사 63:18), ‘주의 거룩한 성읍’에 살며(사 64:10), ‘주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자들(사 64:11)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 탄원은 이처럼 거룩한 백성과 성읍과 성전이 유린당하고 파괴되고 폐허로 변해버렸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읍, 거룩한 성전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왜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성읍과 성전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10a절은 ‘야웨’라는 표현 대신에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오스왈트는 “거룩한 영”이 이사야 63장 10절과 11절, 시편 51편 13절[MT 51:12]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¹⁶⁾ 즉 이들이 거룩한 영을 반역하고 근심케 했다는 것은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3이사야는 많은 곳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사 57:3-13; 65:1-5; 66:1-4),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사 56:9-57:2).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읍에

15) ‘영’(אֵל)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위해, 이사야, “야웨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30집 (2008년 12월), 185-198; 차준희 “구약에 나타난 창조적 영”, 『구약논단』 55집 (2015년 3월), 185-211; 한사무엘, “사무엘서에 나타난 아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의미”, 『구약논단』 61집 (2016년 9월), 137-166 참조.

16) 존 오스왈트, 『이사야 II』 (이음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732. 원제는 Joh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살며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3이사야는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지적하기 위해 특별히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당시 백성들의 선민 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¹⁷⁾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의 지연으로 인해 탄원하는 백성들에게 제3이사야는 구원신약을 이사야 60-62장에 선포하고 있다. 베스터만은 이 구원신약이 백성들의 탄원(사 59장; 63-64장)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았다.¹⁸⁾ 탄원의 내용과 회복의 내용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탄원의 내용은 거룩한 장소(성읍과 성전)와 거룩한 백성이 유린당하고 폐허가 되었는데 거룩한 처소에 계신 아웨께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것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 60-62장의 구원신약에 언급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야 62장은 백성들의 탄원에 대한 대답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준다. 1-9절은 파괴되었던 장소(성읍과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고, 10-12절은 유린당한 백성들의 회복을 보여준다. 먼저 1-9절은 침묵하셨던 아웨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시온(장소)의 회복을 위해 쉬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더 이상 시온은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라고 불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의 성이 될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9절은 이 단락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아웨를 찬양할

17) 헨스(Paul Hanson)은 이사야 63장 7절-64장 12절이 귀환한 사독 가문과 남아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한 레위인들의 갈등을 다룬다고 보았다. 폴 헨스, 「목시문학의 기원」, (이무용, 김지은 옮김), (교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78-93. 원제는 Paul Hanson, *The Dawn of Apocalyp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차일즈(Brevard S. Childs)는 헨스의 주장에 정확한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Brevard S. Childs, *Isaiah*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525 참조.

18) 클라우스 베스터만, *뫓글*, 344.

것이며, 추수한 자가 그것을 마실 것이다, 나의 거룩한 장소에서'(שָׂדֵה קָדְשׁוֹ מִן הַמָּקוֹמִים אֲכָלְהוּ וְהִלְלוּ אֶת־יְהוָה וּמִקְבְּצָיו יִשְׁתְּהוּ בַּחֲצֵרוֹת).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간섭으로 이제 백성들이 거룩한 장소(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추수한 것을 먹고 마시며, 아웨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파괴된 거룩한 성읍과 거룩한 성전이 이제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온전한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제 10-12절은 유린당한 백성들의 회복을 언급한다.¹⁹⁾ 10절은 백성들의 귀환을 위하여 길과 큰 길을 닦고 수축할 것을 말하고, 11절은 특별히 시온의 딸에게 구원과 상급과 보응이 있을 것을 말한다. 마지막 12절은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며, '아웨의 구속을 받은 자', '찾은 바 된 자'로 불리고, 시온은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불릴 것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백성들의 탄원(사 63-64장)은 '주의 거룩한 백성'(עַם קָדְשׁוֹ)이 유린당했음을 강조하였다. 반대로 여기에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עַם קָדְשׁ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한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교만했던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철저하게 망했던 자들이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듣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제3이사야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철저한 회복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백성들의 탄원을 묘사하는 이사야 63-64장에서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 거룩이라는 개념이 이사야 62장의 구원신탁에서는 백성들과 장소들의 온전한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19) Roger N. Whybray, *율글*, 246.

(2) 구원의 지연과 정의(사 59장; 61장; 58장)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63-64장의 공동체 탄원이 구원지연의 문제를 ‘거룩’을 가지고 설명했다면, 이사야 59장의 공동체 탄원은 구원지연의 문제를 ‘정의’를 가지고 설명한다. 여기에 정의가 무려 5번이 나 나타난다(8, 9, 11, 14, 15).²⁰⁾ 이것은 이사야 59장의 메시지가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컬리언(John J. Scullion)은 21절을 후대의 삽입으로 보고 이사야 59장을 정의를 기준으로 3개의 단락(1-8절; 9-15a절; 15b-20절)으로 나눈다.²¹⁾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 3개의 단락의 말씀선포의 주체가 각각 다르며,²²⁾ 이들이 모두 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락(1-8절)에서 말씀 선포의 주체는 제3이사야이다. 제3이사야는 구원의 지연 이유가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며(1-2절), 그들의 죄를 인간의 신체 부위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손과 손가락이 피와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고,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생각은 악하다고 기술한다(3-7절).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죄악을 마지막 절에서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평가한다. 즉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אֵין מִשְׁפָּט בְּמַעֲשֵׂיהֶם), 8절)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제3이사야는 구원의 지연 이유를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²³⁾

두 번째 단락(9-15a절)에서 말씀 선포의 주체는 백성들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입을 통해 구원의 지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

20) 제3이사야서에 מִשְׁפָּט는 총 9번 언급된다(사 56:1; 58:2[2번]; 59:8, 9, 11, 14, 15; 61:8).

21) John J. Scullion, *Isaiah 40-66* (Wilmington: Michael Glazier Inc., 1982), 168; Thomas L. Leclerc, *위글*, 144-145 참조.

22) Marvin A. Sweeney, *Isaiah 40-66* (FOTL 19;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285-291 참조.

23) P. A. Smith, *Rhetoric and Redaction in Trito-Isaiah* (Leiden: Brill, 1995), 119.

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다’(12-13절). 제3이사야처럼 백성들도 그들의 악한 행위를 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다’, ‘정의를 바라나 없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었다’. 여기에서도 구원의 지연 이유가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데, 무려 정의를 3번이나 사용하여 구원의 지연 이유를 설명한다.

세 번째 단락(15b-21절)에서 말씀 선포의 주체는 야웨이다. 이 단락은 야웨의 평가로 시작한다. 15b절은 ‘야웨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15b절)고 말한다. 앞에서 언급된 백성들의 행위(1-15a절)를 야웨께서는 ‘정의가 없다’(אֵין צְדָקָה לָאֵלֹהִים)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3이사야와 백성들의 평가와 다르지 않다. 이사야 59장은 이 세 말씀선포의 주체를 통해 구원의 지연 이유를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야웨는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과 공의와 심판을 베푸실 것이며(16-19절),²⁴⁾ 만약 백성들이 앞에서 고백했던 그들의 허물(12절)에서 돌이키면 야웨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영광 말씀이 백성들의 후손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20-21절). 한마디로 야웨께서는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4-9절의 구원신약에 다시 한 번 강조된다.²⁵⁾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사 59:21) 이제 지연된 구원이 폐허가 된 성읍과 유린당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폐허가 된 땅과 성읍이 회복되어 그 땅에서 백성들이 갑절을 얻고 영원

24) Thomas L. Leclerc, *윗글*, 154.

25) 스킨리언(Scullion, *윗글*, 169)은 이사야 59장 21절과 이사야 61장 8절의 연관성을 주장하였으며, 스미스(Smith, *윗글*, 126)는 이사야 59장 21절을 이사야 66장 8-9절의 재해석이라고 보았다.

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심지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양떼를 치며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며, 이스라엘은 야웨의 제사장이라 불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야웨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기 때문이라’ (הַיְהוָה אֱהָב מִשְׁפָּט שְׂנֵא נֹל בְּעוֹלָה) (8절)는 것이다. 회복과 구원의 근거를 정의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²⁶⁾ 백성들은 정의를 미워했지만(사 59장), 야웨는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 58장은 구원의 지연 이유를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도 מִשְׁפָּט (미쉬파트/정의, 규례, 판단, 2절)가 사용되고 있다.²⁷⁾ 여기에서 백성들은 금식까지 하며 야웨의 은혜를 구했지만 야웨께서 보지도 알아주지도 않았다고 탄식한다(3a절). 그러자 야웨는 그들이 ‘야웨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금식 방법을 알려주신다(3b-7절). 이 단락의 서론 역할을 하는 2절에 올바른 금식 방법이 2번의 미쉬파트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야웨는 올바른 금식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미쉬파트)를 버리지 않고, 의로운 판단들(미쉬파트)을 야웨께 구하는 민족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백성들이 미쉬파트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행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백성들이 위선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웨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9절은 만약 백성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26) John Golding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Isaiah 56-66* (ICC; London: Bloomsbury, 2014), 313; Thomas L. Leclerc, *윌클*, 153-155; 클라우스 베스터만, 421-422 참조.

27) P. A. Smith, *윌클*, 127.

28) 헨슨(Paul D. Hanson)은 2절이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것으로 본다. Paul D. Hanson, *Isaiah 40-66*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204.

응답할 것을 말씀하신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정의의 부재로 야웨의 구원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2) 이방인과 거룩과 정의

제3이사야서에 ‘이방인’(גֵּרִים)은 5번 나타나고(사 56:3, 6; 60:10; 61:5; 62:8), ‘이방 나라’(גְּוִיִּים/גְּוִיָּה)는 20번 나타난다(사 58:2[나라]; 60:3[나라들], 5[이방 나라들], 11[이방 나라들], 12[2번; 백성, 백성들], 16[이방 나라들], 22[나라]; 61:6[이방 나라들], 9[나라], 11[나라]; 62:2[이방 나라들]; 64:2[MT 64:1; 이방 나라들]; 65:1[나라]; 66:8[나라], 12[나라], 18[나라], 19[2번; 나라, 나라], 20[나라]).²⁹⁾ 이것은 제3이사야가 이방인/이방 나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베스터만은 제3이사야서에 이방인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았다.³⁰⁾ 슈미트(Werner H. Schmidt)는 “제3이사야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를 바라기보다는(사 63:1 이하; 60:12; 66:15-16, 24)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그 미래의 구원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사 60:3-4, 9; 61:9; 66:12, 20; 이미 사 49:22-23)”고 보았다.³¹⁾

실제로 이방인들이나 이방 나라들의 구원과 심판은 제3이사야서의 여러 곳에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심판보다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거룩’과 ‘정의’이다. 여기에서는 이것들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9)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Joseph Blenkinsopp, *Isaiah 56-66* (AB 19; New York: Doubleday, 2003), 136 참조.

30) 클라우스 베스터만, *읽글*, 349.

31)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차준희, 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375. 원제는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1) 이방인과 거룩(사 56장; 60장; 66장)

제3이사야서(56-66장)는 특이하게도 이방인과 고자의 수용의 문제와 함께 시작된다(사 56:1-8). 특별히 이방인의 수용의 문제(3a절, 6-7절)는 거룩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כְּגֵרֵי הַנְּקִיבִּים הַנִּלְוָה אֶל־יְהוָה)으로 명명되며(3a절), 이들은 ‘야웨를 섬기고’, ‘야웨의 이름을 사랑하고’, ‘야웨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야웨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로 불린다(6-7절). 야웨는 이러한 자들을 ‘나의 거룩한 산’(הַר קָדְשׁ)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대신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야웨께 연합하고 야웨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7절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야웨의 제단에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으며, 야웨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이방인의 자격을 위해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4장 3절은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시온의 백성은 거룩하다는 것이다. 제3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거룩하며, 거룩한 삶을 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웨는 만약 이방인들이 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킨다면,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³²⁾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선민

32) Brooks Schramm, *웃음*, 125.

이스라엘들보다 낫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3이사야는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방인 또한 야웨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의 수용에 대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이 이사야 60장 1-14절에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이방 나라들”(גוֹיִם; 3절, 5절, 11절)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이것을 위해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9절, 14절). 이 단락은 세 부분(1-3절; 4-9절; 10-14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의 끝에는 이방 나라가 언급되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끝에는 거룩이 언급된다.

첫 번째 단락(1-3절)은 서론으로 이방 나라들의 참여가 강조된다. 시온에 야웨의 빛과 영광이 임할 것이며(사 60:19 참조),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시온으로 그 빛과 영광을 보고 올 것이라고 말한다.³³⁾ 두 번째 단락(4-9절)은 먼 곳에 있던 시온의 아들과 딸들이 이방 나라들과 함께 육로와 해로를 통해 시온으로 모일 것이며, 그때에 그들이 다양한 재물과 제사에 쓸 동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스바의 금과 유향; 게달의 양; 느바웃의 숫양; 다시스의 은금). 특별히 9b절은 이방인들이 이것들을 시온으로 가져온 목적을 말한다. 그 목적은 ‘너의 하나님 야웨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위하여’(וְהָיָה אֱלֹהֵי יְהוָה וְלִקְרֹא שְׁמֵי יְהוָה)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웨에게 예물과 제물을 드리려고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표현이 나타난다. ‘너의 하나님 야웨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병립되어 나타난다. 오스왈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표현이 ‘야웨’와 병립되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강력한 자질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³⁴⁾ 그러면서 그는 “하나

33) 서명수, 「제30이사야: 사 56-66 주석적 이해와 설교적 적용」(서울: 한울출판사, 2003), 87-88.

34) 존 오스왈트, *뫼글*(2013), 11-12.

님의 거룩함은 그가 인간과 신의 영역에서 어떤 대적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이 찬양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³⁵⁾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 나라들의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오직 야웨만이 진정한 신이며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 56장에서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얻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10-14절)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재물을 드리려고 왔던 이방 나라들의 역할을 통한 시온과 성전의 재건을 묘사한다.³⁶⁾ 먼저 10-11절은 시온의 재건을 다룬다. 여기에서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들이 시온을 재건하고 시온을 위해 섬길 것이라고 말한다. 13-14절은 레바논의 나무들로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방인들과 거룩이 함께 나타난다.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시온을 유린하고 파괴했던 자들로 묘사되는데, 시온과 성읍이 재건되면 바로 이들이 시온의 발아래 엎드릴 것이며, ‘시온을 야웨의 성읍이라’고 부르며, ‘시온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언급된 이방인들의 ‘굽힘’(כָּנַע)과 ‘엎드림’(שָׁרַף)은 이방인들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³⁷⁾ 특별히 시온이 ‘야웨의 성읍’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는 이방인들의 고백은 매우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시온을 괴롭히던 자들’과 ‘시온을 멸시하던 자들’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이들이 시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함부로 하던 시온이 이제는 거룩한 야웨의 시온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

35) 윗글, 16.

36) 클라우스 베스터만, 윗글, 410-411.

37) 에드워드 J. 영, 「이사야서 주석 III」(장도선, 정일오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497. 원제는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I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2).

국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된 이방 민족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시온은 거룩한 분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더 발전된 모습이 제3이사야서의 마지막 이사야 66장 18-21절에 언급된다. 이방인의 문제로 시작된 제3이사야서가 이방인의 문제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כָּל-הַגּוֹיִם וְהַלְשׁוֹנוֹת)로 묘사되는데, 특별히 야웨에게 순종한 이방인들(כָּל-יִשְׂרָאֵל)이 여러 나라에 보내져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이며(19절),³⁸⁾ 모든 형제를 제물과 함께 야웨의 ‘거룩한 산(הַר קָדְשׁ)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된다(20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56장은 이방인들의 자격을 강조했고, 이사야 60장은 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별히 21절은 야웨께서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וְהָיָה לְכֹהֲנִים לְלֵוִיִּם)고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자의 자격을 얻었기에,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⁹⁾ 거룩한 산으로의 입성을 강조하여 이방인을 이스라엘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 취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8) כָּל-יִשְׂרָאֵל(엘레임/도피한 자)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Gary V. Smith, *Isaiah 40-66* (NAC 15B; B & H Publishing Group, 2009), 749; 존 D. W. 와츠, 「이사야 34-66」(강철성 옮김), (WBC 25; 서울: 솔로몬, 2014), 569 참조. 원제는 John D. W. Watts, *Isaiah 34-66* (WBC 25;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8).

39) Gary V. Smith, *웃길*, 751.

(2) 이방인과 정의(사 56장)

제3이사야서는 ‘정의를 지켜라’(שְׁמַרְתֶּם צְדָקָה)는 아웨의 명령으로 시작한다(사 56:1). 이것은 제3이사야서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5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정의의 부재이며, 이것으로 인해 구원이 지연되었음을 무려 5번이나 언급하였다(8, 9, 11, 14, 15절). 그런데 이 정의의 문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사야 56장 1절의 ‘정의를 지키라’는 명령이 3-8절에 언급된 이방인과 고자의 수용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⁴⁰⁾

이사야 56장 1-2절은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별히 1절은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정의를 지키라’, ‘공의를 행하라’는 아웨의 명령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그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2a절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2a α 절), ‘이것을 굳게 잡는 사람’(2a β 절)이 복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1절과 연결하여 볼 때 이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⁴¹⁾ 2b β 절은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것 또한 정의와 공의의 부재를 언급하는 표현으로 이사야 56장 9-12절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제3이사야서를 시작하는 이사야 56장 1-2절은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하여, 또한 이방인의 복과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의와 공의는 이방인의 구원과 복을 위한

40) 블렌킨소프(Joseph Blenkinsopp, 윗글, 62)는 이사야 56장 1-2절을 이사야 56-66장의 편집적 서론으로서 간주하여 1-2절을 3-8절과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스미스(윗글, 64)는 만약 이사야 56장 1절이 포로기 이후 초기에 기인한다면, ‘고자’들은 포로기 동안 공무원으로 바벨론에 의해 고용되었던 사람들이었으며, ‘이방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유대인 포로들에게 연합되었던 다른 민족이었을 것으로 본다.

41) John Goldingay, 윗글, 70.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3) 우상숭배와 거룩과 심판

제3이사야는 많은 곳에서 우상숭배의 문제를 지적한다. 제3이사야는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장(사 57장; 65장; 66장)에서 우상숭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⁴²⁾ 이것은 제3이사야 당시 우상숭배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였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우상숭배의 문제는 앞의 두 이슈와는 다르게 ‘거룩’과 ‘심판’의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1) 우상숭배와 거룩(사 57장; 65장)

우상숭배와 거룩의 관계는 이사야 57장 3-13절에 언급되고 있다. 특별히 거룩은 이 단락의 마지막에 놓여 이 둘의 관계를 강조한다. 우상숭배자들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3절)과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4절)으로 명명된다. 이들은 상수리나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골짜기에서, 높은 산 위에서 우상을 열정적으로 숭배하였다(5-10절). 그리하여 야웨는 이들에게 야웨를 속이고,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며 우상숭배가 유익한 것이 못된다고 강조하신다(11-12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비교법을 사용하여 우상의 무능력과 야웨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강조하신다(13절). 그런데 이 결론에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야웨를 의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야웨의 거룩한 산(שֶׁמֶט־קֹדֶשׁ)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3b절). 우상의 무능력과 ‘거룩한 산’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둘의 관계는 이사야 56장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⁴³⁾ 이사야

42) 에드워드 J. 영, *윌름*, 441-450, 550-551, 579-580 참조.

43) P. A. Smith, *윌름*, 87.

56장은 이방인도 야웨와 연합하면 야웨에 의해 ‘거룩한 산’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이제 이사야 57장은 야웨를 의지하는 자가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누구든지 야웨를 의지하는 자는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지라도 만약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야 57장은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그릇된 생각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우상숭배에 대한 더 발전된 모습이 이사야 65장 1-16절에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이사야 57장 13절은 두 부류의 사람(‘우상숭배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언급된다. 즉 ‘우상숭배자’(3-5절; 11절)와 ‘하나님의 종들’(8-9절; 13-15절)이 언급된다.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1-7절; 8-16절). 먼저 1-7절은 우상숭배자들의 행위를 언급한다. 여기에서 이들은 ‘패역한 백성’으로 불리는데(2절), 이들은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무덤과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 자들로 묘사된다(3-4절).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קִדְּשָׁךְ)고 주장한다(5a절).⁴⁴⁾ 우상숭배자들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이들을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5b절)고 간주하며, 이들의 행위에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6-7절). 이렇게 야웨께서 진노하시며 보응을 다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상숭배자가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44) 헨슨은 레위인들이 사독계열 제사장들에게 하는 비난이라고 본다. 폴 헨슨, *윗글*(2007), 121-143 참조.

육보이는 표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상숭배자들의 잘못된 사고를 근본부터 뿌리째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숭배를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의 그릇됨을 지적하기 위해 거룩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8-16절은 ‘우상숭배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강조한다. 여기에서도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내가 택한 자”, “내 백성”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야웨의 산들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8-10절). 반면에 야웨께서는 그를 버리며, 그의 거룩한 산을 잇고 우상(갓, 므니)을 섬기는 자들을 칼에 붙여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1-12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들이 ‘야웨를 버리고’(יְהוָה עָזְבוּ), ‘그의 거룩한 산을 잊었다’(הִשְׁכַּחְתֶּם אֶת־הַר קְדְשִׁי)는 것이다. ‘야웨’와 ‘거룩한 산’이 병렬로 나타난다. 앞에서 우상숭배자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점점 죄악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들에게 야웨는 비교법을 통해 그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함 대신에 ‘주릴 것이다’, ‘갈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저주를 퍼부으신다(13-15절).

(2) 우상숭배와 심판(사 66장)

한 걸음 더 나아가 야웨는 제3이사야의 마지막 장에서 우상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다(사 66:15-17). 야웨는 심판할 대상이 있어서 강림하실 것인데(15절), 특별히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심판할 것이다’(בְּאֵשׁ יְהוָה נִשְׁפָּט וּבְחַרְבוֹ כָּל־בָּשָׂר)라고 말씀하신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강림하여 불과 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여

기에서 불과 같은 철저한 심판을 의미한다.⁴⁵⁾ 심판의 대상은 “모든 혈육”(כָּל־בָּשָׂר)인데(16절), 특별히 17절은 심판의 대상을 우상숭배자들로 한정한다.⁴⁶⁾ 이사야 65장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우상숭배자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들로 묘사된다. 이러한 행태를 보고 야웨는 강림하셔서 불과 칼로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하겠다고 결단을 하신 것이다. 이사야 65장에서 2번이나 반드시 ‘보용하겠다’(6절)고 말씀하신 야웨께서 이제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מַשְׁפִּיט의 동사형 ‘심판하다’(מָשַׁפַּט)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거룩하지 못한 우상숭배자들의 최후는 야웨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이다. 거룩의 개념을 사용하여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의 개념을 사용하여 우상숭배자들의 최후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제3이사야서는 구원지연의 문제, 이방인 수용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의 절망과 갈등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3이사야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된 주제들이다. 제3이사야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위해 ‘거룩’과 ‘정의’(심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구원지연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백성들의 탄원을 언급하는 이사야 59장과 63-64장에 나타나는데, 특이하게도 후자는 구원지연의 이유를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며, 전자는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거룩한 영에 대한 반역’과 ‘정의의 부재’로 인

45) 에드워드 J. 영, 윗글, 579.

46) 영(윗글, 579)은 모든 혈육은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의 버린 유대 국가의 사람들, 즉 대다수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해 구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백성들의 탄원에 대한 대답인 이사야 60-62장은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거룩과 정의의 개념이 사용된다. 즉 폐허가 된 시온이 ‘거룩한 곳’이 되며, 타락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고(사 62장), 정의의 부재로 지연된 구원이 ‘하나님의 정의’로 인해 성취된다는 것이다(사 61장).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을 기술하는 핵심 개념으로 거룩과 정의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 수용의 문제는 제3이사야서의 시작(사 56장)과 끝(사 66장)과 중간(사 60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거룩과 정의의 개념이 사용된다. 선민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지키면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사 56장), 그 자격으로 인해 재물과 희생을 ‘거룩한 야웨’에게 드릴 수 있으며, 그들이 파괴했던 시온을 ‘거룩한 야웨의 소유’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사 60장). 심지어 이사야 66장은 이러한 이방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거룩과 정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방인의 지위의 변화를 점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숭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들은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보다 못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것을 위해 특별히 ‘거룩’과 ‘심판’의 개념이 사용된다. 거룩의 개념은 이 당시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심판의 개념은 이들의 최후를 기술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들은 우상숭배를 통해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으며(사 57장), 그런 자신들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이제는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망각하기까지 하였다(사 65장). 그리하여 이러한 자들에게 야웨의 불과 칼에 의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사 66장).

따라서 제3이사야서에서 거룩과 정의(심판)라는 개념은 갈등과 절망

가운데 있는 회복공동체의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이슈의 한 가운데 있는 핵심 개념으로, 3개의 이슈와 어우러져 제3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참고문헌

-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차준희, 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2). 원제는 Schmidt, Werner H.,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 서명수, 「제3이사야: 사 56-66 주석적 이해와 설교적 적용」 (서울: 한들출판사, 2003).
- 에드가 콘래드, 「이사야서 읽기」 (장세훈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원제는 Conrad, Edgar W., *Reading Isaiah*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91).
- 에드워드 J. 영, 「이사야서 주석 III」 (장도선, 정일오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원제는 Young, Edward J., *The Book of Isaiah Vol. I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2).
- 이사야, 「야훼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30집 (2008년 12월), 185-198.
- 이희성, 「이사야 56-59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성경과 신학」 제52권 (2009), 109-141.
- 장세훈, 「이사야서의 중심 신학: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16호 (2001년 여름), 82-89.
- 존 오스왈트, 「이사야서에 나타난 성결」, 「성결교회와 신학」 제30호 (2013년 겨울), 9-39.
- 존 오스왈트, 「이사야 I」 (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원제는 Oswalt, Joh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NIC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 존 오스왈트, 「이사야 II」 (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원제는 Oswalt, Joh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 존 D. W. 와츠, 「이사야 34-66」 (강철성 옮김), (WBC 25; 서울: 솔로몬, 2014). 원제는 Watts, John D. W., *Isaiah 34-66* (WBC 25;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8).
- 차준희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 「구약논단」 55집 (2015년 3월), 185-211.
- 클라우스 베스터만, 「이사야(3)」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원제는 Westermann, Claus, *Das Buch Jesaja 40-6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 폰 라트, 「예언자들의 메시지」 (김광남 옮김), (서울: 비전북, 2011). 원제는 Von Rad, Gerhard, *Die Botschaft der Propheten* (Munich: Siebenstern Taschenbuch Verlag, 1967).
- 폴 헨슨, 「묵시문학의 기원」 (이무용, 김지은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스트, 2007). 원제는 Hanson, Paul, *The Dawn of Apocalyp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한사무엘, “사무엘서에 나타난 야웨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의 의미”, 「구약논단」 61집 (2016년 9월), 137-166.
- Blenkinsopp, Joseph, *Isaiah 56-66* (AB 19; New York: Doubleday, 2003).
- Childs, Brevard S., *Isaiah*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Gammie, John G.,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Goldingay, Joh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Isaiah 56-66* (ICC; London: Bloomsbury, 2014).
- Gray, Mark, *Rhetoric and Social Justice in Isaiah*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6).
- Hanson, Paul D., *Isaiah 40-66*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 Leclerc, Thomas L., *Yahweh Is Exalted in Justice: Solidarity and Conflict in Isa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 Rendtorff, Rolf, *Canon and Theology: Overtures to an Old Testament Theology* (Margaret Kohl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원제는 Rolf Rendtorff, *Kanon und Theologie: Vorarbeiten zu eine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 Schramm, Brooks, *The Opponents of Third Isaiah: Reconstructing the Cultic History of the Restoration* (JSOTSS 19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Scullion, John J., *Isaiah 40-66* (Wilmington: Michael Glazier Inc., 1982).
- Smith, Gary V., *Isaiah 40-66* (NAC 15B;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09).
- Smith, P. A., *Rhetoric and Redaction in Trito-Isaiah* (Leiden: Brill, 1995).
- Sweeney, Marvin A., *Isaiah 40-66* (FOTL 19;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Whybray, Roger N., *Isaiah 40-66* (NC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검색어

제3이사야

이사야 56-66장

거룩

정의

공의

Holiness and Justice in Isaiah 56-66

Rae-Yong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yupSung University

This article investigates several functions of 'holiness' and 'justice' in Isaiah 56-66. For this, I analysed the languages, structures, and contents of the texts related to these two concepts and three issues in the Third Isaiah period: the delay of salvation, the acceptance of foreigners, and idolatry.

The issue of the delay of salvation concretely appears in Isaiah 59 and 63-64. In particular, Isaiah 63-64 describes the delay of salvation through the concept of holiness, and here the concept of holiness

www.kci.go.kr

plays a role in indicating the people's unholy life (Isa 63:7-14) and emphasizing the perfect restoration of the unholy people and cities (Isa 62:1-9). On the other hand, Isaiah 59 emphasizes that the delay of salvation is due to the absence of justice, and this is repeated especially by the words of the Third Isaiah, people, and Yahweh. However, Isaiah 61 emphasizes that the people and cities will be ultimately restored through Yahweh's love of justice (vss. 4-11).

The issue of the acceptance of foreigners occurs in Isaiah 56 and 66,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Third Isaiah respectively, and Isaiah 60, its middle. 'Holiness' is used to explain the qualification of foreigners as members of the Israel community (Isa 56:1-8), to emphasize that the foreigners realized the fact that God is one and only and that Zion belongs to God the Holy (Isa 60:1-14), and furthermore, to emphasize that the foreigners would be able to serve as priests and Levites because they get the qualification as members of the community (Isa 66:18-21). Here especially 'justice' and 'righteousness' are mentioned as a condition required for their salvation and blessing (Isa 56:1-2).

The issue of idolatry appears in Isaiah 57, 65, and 66. 'Holiness' is used to indicate the wrong way of thinking of Israel who worship idols (Isa 57:3-13; 65:1-17), and to stress that they have not followed God wholly (Isa 65:8-16). In particular, the Hebrew term *šāphaṭ*, the verb of *mīšpāṭ*, is used for the judgment against the idolaters who have been proud of their self-righteousness (Isa 66:15-18).

Accordingly, 'holiness' and 'justice' are the two important concepts that are central issues of religion and society in the period of the Third Isaiah, and they serve as core components composing the messages of

the Third Isaiah.

Keywords

Third Isaiah

Isaiah 56-66

holiness

justice

righteousness

- 투고일: 2017년 1월 1일
- 심사일: 2017년 2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6일